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한눈에

전북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페어 온·오프 병행
오늘부터 이틀동안
전문가초청 세미나
SW융합 전시관 등



내년 예산안 제안설명

전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22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북도가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7회 전북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페어를 온·오프 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Data Network, AI)과 농생명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스마트 농업 최첨단 기술 및 산업융합 세미나를 진행한다. 현재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농생명 소프트웨어 기업의 제품·기술 전시를 통해 디지털의 옷을 입힌 스마트 농생명 산업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현황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농생명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기술개발과 기술 상용화 지원,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작년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의 기반을 활용하고, 사업 연속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비

즈니스 서비스 추진을 목표로 플랫폼 구축과 사업화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도를 이끌어 갈 유망 농생명 분야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 전시에서는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 소개는 물론,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우수상품·기술 등 약 20여 개사의 제품과 기술 시연을 진행한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단은 추진사업과 비즈니스 플랫폼 소개를, 엠에이치소프트는 증강현실 기반 실시간 버섯 생육 관제 시스템을, 나래는 농약 정보 데이터 수집을 통한 농약 오사용 근절 플랫폼을 전시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통해 발굴된 도내 기업의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

업분야 및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해 최신의 기술동향과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페어'는 그간 전북도가 스마트 농생명의 선두 주자로 다져온 입지와 앞으로의 미래를 동시에 선보이는 자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북의 스마트 농생명산업이 곧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전 도민 80% 넘어

2차 접종자수 143만5301명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고령층 등은 추가접종 필요



22일 0시 기준, 전북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자 수가 143만명을 넘기며 전 도민의 80% 이상이 접종을 마쳤다. 도는 누적 1차 접종자가 150만3161명으로 도민의 88.89%에 해당하며, 이중 143만5301명이 2차 접종을 완료(80.06%)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2세 이상 접종대상 인구의 92.24%(접종 완료 88.08%)에 해당한다. 도는 첫 접종을 시작한 이후, 약 10개월 동안 안전판 예방접종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 무엇보다도 가족 건강과 공동체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주신 도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효과가 감소하고,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변역을 일시에 증강시켜주는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사망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추가접종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되는 시점에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2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카카오톡·네이버) 달성에 약 서비스를 통한 잔여백신으로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간격이 단축됨에 따라 사전예약 시기가 도래하면,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대상 여부 및 사전예약 방법이 안내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방역관리, 치료병상 운영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께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올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는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전북도 분청),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자치연금 제도(익산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소 브루셀라 우열해 체질 신장(정읍시), ▲부류부류~ 버스 완주군 자체 대중교통 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전북도 '소규모 화재피해 주민 보호 조례 제정 지원'
익산시 '공공기관 참여 마을자치연금 제도' 등 총 5건

비스 제공(완주군), ▲농산물 재해펀딩으로 호우 재해 피해농가 재기의 길 열다(순창군) 등 5건이다.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은 대규모 화재 피해에는 임시거처 마련 등을 지원하지만, 소규모 화재피해에는 지원

근거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특히, 화재진압과정을 지켜보며 심리적·육체적으로 힘든 피해자를 위한 심리회복 지원제도가 없어 이 재민 고통은 가중돼 왔다. 이에, 도는 소규모 화재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조

례 제정에 적극 협력해 임시거처 비용 지원 및 심리회복 상담 등 이재민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으로 올 한해 소규모 화재피해자 25명에게 임시거처 비용 및 8회에 걸친 심리회복 상담을 지원했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규제로 인해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로 위 달리며 '강호축'을 널리~

상생 구간 마라톤대회 출전자들 내일 전북 통과

제2회 강호축 상생 구간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오는 24일 전북을 통과한다. 22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23~27일 대대간 호남과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강호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강호축 상생 구간 마라톤대회'가 펼쳐진다. 이 대회는 강호축 7개 시·도와 서울시 대표 등 100여 명의 선수와 임원

이 참가, 전남 무안(전남도청에서 출발) 전북과 충청 등을 지나 강원도 강릉(강릉시청)까지 263.8km를 릴레이 방식으로 달린다. 전남·광주·전북·충남·세종·충북·강원 등 곳곳을 달리며 강호축 발전 가능성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선수와 임원 등 20명이 참가, 24일 오전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관계자들의 출발시총을 시작으로 선수들은 전북에서 충남 구간으로 합쳐져 달리게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개발공사

언제나 도민과 함께 전북개발공사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전라북도를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